

조선 후기 전남지역의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shing Culture of Chonnam Region in the La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안 현 주(Ahn, Hyeonju)**

< 목 차 >

I. 서론	4.3 판종별 분석
II. 조선 후기 전남지역의 출판문화적 배경	V. 조선 후기 전남지역 출판물의 특성
III. 조선 후기 전남지역의 출판 서적	5.1 경부서적
3.1 책판목록에서 파악한 서적	5.2 사부서적
3.2 현전본	5.3 자부서적
IV. 조선 후기 전남지역 출판물에 대한 분석	5.4 집부서적
4.1 지역별 분석	VI. 결 론
4.2 시기별 분석	

초 록

이 연구는 조선후기 전남 지역의 출판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전본과 문헌을 통해 서목을 작성하여 시기별, 지역별, 주제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선후기 전남지역에서는 보성의 죽천서당에서 서적간행을 시작하였다. 또한 시기를 막론하고 문집은 비중있게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17세기와 18세기 전반까지 나주가 출판의 중심지였다가 19세기 후반에는 장흥이 출판의 중심지가 되었다. 후대로 올수록 보계류, 전기류, 별집류, 지리류 등의 서적을 집중적으로 간행하였다. 19세기부터는 목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한 서적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목활자를 이용한 빈도가 높은 것은 전적의 내용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출판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세기 후반이고, 조선전기에 비해 유가류, 총집류, 의가류, 사서류 등은 비중이 줄어들었다.

키워드: 전남, 출판, 나주, 장흥, 목활자, 문집

ABSTRACT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ublishing culture in Chonnam province during the latter half of Chosun Dynasty. The subjects, dates, and places of publication are analyzed from the books which have been found in the publication records and the catalog of woodblocks. Right after the war, Samryakjikkae and Sohakjipsul were published at Jukchunseodang, Bosung area. Anthologies were published dominantly through the whole period. Naju was the center of publication in 17 & the first half term 18 centuries and then moved to Jangwheung area. In this period, publication of genealogical records, biographies, anthologies, geography books had been increasing vastly. From the 19 century, most books were published by using the wooden type. The wooden type was used because the contents of books were for the limited number of publication. The most active publication happened at the end of 19th century. Significance of Confucian literature, collective anthologies, medical science, and confucious classics decreased in the latter half.

Keywords: Chonnam, Publishing, Naju, Jangwheung, Wooden type, Anthology

* 본 연구는 2011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임.(과제번호 : NRF-2011-35C-H00010)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treenbird@hanmail.net)

• 접수일: 2012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한 지역의 출판문화는 그 곳에 거주했던 이들의 문화와 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그 시대의 교육과 교양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사상과 고유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선조들의 지적소산물들은 우리에게 계승되어, 미래의 학문과 문화를 형성하는데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 동안 호남지역의 출판에 관해서는 한 지역이나 감영의 책판 및 전적문화를 다룬 연구¹⁾들이 늘어나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전남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조선 전기 전남지역의 출판에 관한 연구와 羅州의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에 이어 조선 후기 전남지역의 출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후기의 시간적 범위를 임진왜란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인 1910년까지로 제한하였고, 연구의 방법은 각종 책판목록과 기타 문헌들을 이용한 문헌조사와 현존본 조사를 통해 전남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의 전체서목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지역별, 시기별 분석을 하여 전적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책판목록에 수록된 전남지역의 세부지명이 17개나 되어서 지리적 특징을 기준 삼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즉 지리산과 섬진강유역의 山岳地方인 동부권(순천, 곡성, 구례), 서해안과 영산강 유역의 서부권(나주, 영광, 영암, 무안, 함평), 기후가 따뜻하고 남해까지 접해있는 남부권(강진, 고흥, 보성, 장흥, 해남), 전남의 북쪽에 위치한 광주목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장성, 광주, 담양, 화순)으로 나누었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학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전남지역 출판문화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조선 후기 전남지역의 출판문화적 배경

고려시대나 조선전기와 비교할 때 조선후기는 현재의 시군 편제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조조에는 현재의 전남지역이 나주, 광주, 능주 등 3牧과 장흥, 순천, 담양, 장성 등의 4都護府, 보

1) 송일기, 全南 書院의 木板(광주 :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 1998).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옥영정,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2).
강혜영, “남원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pp.5-34.
최지선,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안현주, “조선시대 羅州의 인쇄문화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12. 3), pp.417-438.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46집(2010. 9), pp.159-198.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12), pp.433-470.

성, 영암, 영광, 진도 등 4郡, 창평, 광양, 함평, 강진, 옥과, 남평, 무안, 구례, 곡성, 흥양, 해남, 동북, 화순 등의 13縣으로 되어 있다.²⁾ 현재는 능주, 동북이 화순군으로, 남평은 나주시로, 옥과는 곡성군으로, 창평은 담양군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전남지방에 2곳의 水營을 두었는데 여수에 좌수영, 해남에 우수영이 있었다. 18세기 후반의 주요 고을 인구수를 살펴보면, 나주 57,782명, 순천 46,330명, 영광 44,783명, 흥양(고흥) 45,044명, 광주 32,690명, 강진 27,059명, 진도 25,013명, 장성 22,789명, 함평 22,391명, 장흥 20,983명 등으로, 전남 지역은 24개 군현에 418개면, 7,216개의 마을이 있었다.³⁾

조선후기에 왜란과 호란, 이괄의 난 등으로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고, 전남지역에서는 기축옥사(정여립사건, 1589년)를 필두로 정개청사건(1590년), 나주 패서사건(1755년) 등으로 사림 세력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兩亂을 거친 조선후기의 사회는 각 방면에서 근본적인 변모를 겪게 되는데 전라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변사의 기능 확대, 군사제도의 개편, 대동법, 균역법의 시행 등으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농업 분야의 경우 16세기 전란 후 피폐했던 상태에서 이앙법의 보급으로 생산력이 증가되었고, 상품경제와 유통구조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신분 변화와 계층분화현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의 재지사족들은 조선후기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와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세력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⁴⁾ 각 방면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각기 그 대응과정에서 근대적 사상의 맹아를 보게 되어 실학사상의 발달, 서양문물의 수용, 서민예술의 발달, 동학의 창도 등을 가져왔다. 조선 후기 전남의 유학자로는 안방준, 기정진, 윤선도, 임영, 정오도, 박광원, 이희석, 정시립, 기우만 등이 있다. 전남의 실학자로는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승평지』를 편찬한 이수광, 윤선도의 증손자이며 조선지도와 일본지도를 그린 윤두서, 정약용의 외삼촌이며 천주학의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 『환영지』라는 세계지도를 편찬한 위백규, 자명종을 개량제작하고 천문, 지리, 율력에 능했던 화순의 하백원, 다산의 제자들 등이 있다.⁵⁾

전남지역의 교육시설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재 전국에 있는 향교는 230여개인데 이들 중 전남지방의 현존 향교수는 28개교이다. 전남지방의 서원은 1564년 순천에 세워진 玉川書院을 시초로 조선 후기에는 사액서원 33개소를 비롯하여 405개소에 이르렀다.⁶⁾ 전남 지역의 서원의 건립 추이는 전국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서원과 祠宇의 대비에서 사우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고, 도학연원의 인물제향보다 충절인물의 제향사례가 초기 서원 건립의 주류를 이루었다. 숙종대 이후 서원설립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문중인물의 제향이 점점 노골화되었고, 동족마을의 형성과 관련하여 입향지나 태생지에 건립되었던 영당이나 사당을 서원으로 만드는 경향이 강해져 갔다. 18

2) 『大典通編』

3)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편, 全羅南道誌 제5권(광주 :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pp.36-38.

4) 상계서, pp.16-20.

5)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광주 : 사회문화원, 2002), pp.77-78.

6)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편, 전계서, p.309.

세기 후반 이후 19세기 전반에 건립된 '문중서원'의 사례에서 70-80%의 서원들이 단일 성씨로 운영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준다.⁷⁾

한편, 전남지역은 종이의 생산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16세기 닥나무 생산지는 나주, 광산, 함평, 남평, 무안, 해남, 창평, 곡성, 옥과, 순천, 낙안, 보성, 능성, 광양, 구례, 동복 등이고, 18세기 초 場市에서 종이를 유통하던 곳은 나주, 순천, 광양, 남평, 곡성 등이다.⁸⁾ 조선전기에 나주에는 10명의 紙匠이 있었고 후기에는 1명의 紙物匠과 1명의 都紙匠이 있었다.⁹⁾ 1871년에 영광군 삼북면민들이 올린 문서에서 本面の 紙所가 운영된 지 수백년이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오랫동안 종이를 생산하고 유통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광양에서는 質楮價와 雜費의 증가로 추가 징수의 폐해가 나타나자 1818년에 관영 제지소를 혁파하고 紙所를 두었다. 능주에서는 保民廳과 工庫에서, 옥과에서는 吏房, 補邑色, 工房에서 본연의 임무와 함께 종이를 구매하거나 종이 값을 부담하고 있었다.¹⁰⁾ 19세기 전라좌수영에서는 紙倉을 두어 종이를 구매하고 공급했는데 여기에서 유통되는 종이의 종류는 搗鍊紙, 油貼, 啓目紙, 油衫紙, 笠帽紙, 試紙, 正草紙, 明紙, 白扇紙, 靑紙, 小皮紙, 大皮紙, 天皮紙 등이었고, 종이를 만드는 곳은 근처의 광양 황룡사와 여수 흥국사였다.¹¹⁾

전남지역에서 간행된 현전본 중 가장 오래 된 전적은 나주에서 간행한 國寶 第 291號(1997.1.1 지정)로 지정된 『龍龕手鏡』¹²⁾이다. 僧 行均이 찬집한 목판본인데 卷4의 末尾에 “羅州牧官雕刻四卷入九十三張, 司錄掌書記借良縣令權得齡”라고 되어 있어서 나주목에서 새긴 것은 분명하나 간행년을 알 수 없다. 판식으로 보아 12세기-13세기로 추정하는데¹³⁾ 고려시대 나주목의 판각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Ⅲ. 조선 후기 전남지역의 출판 서적

전남 지역의 출판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책판과 현존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책판목록에 나타난 정보는 대체로 서명, 剜缺, 인출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 책판의 소장처 등이기 때문에, 현존본의 刊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책판목록에 수록된 책판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7)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서울 : 경인문화사, 2008), pp.211-216.

8) 전남지편찬위원회 편, 전계서, pp.98-100.

9) 김삼기, 조선후기 製紙手工業 연구(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pp.16-48.

10)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紙庫설립과 운영,” 역사학연구, 제18집, 2002, pp.54-62.

11) 『湖左水營誌』 紙倉條(1847).

12) 고려대학교(육당 貴 1 463018717)에서 소장하고 있다

13)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p.132-137.

1. 책판목록에서 파악한 서적

册板目錄은 그 지방의 책판 소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조선 후기에 전남지역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책판목록¹⁴⁾에는 「册板置簿册」,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嶺湖列邑所在册板目錄」, 「各道册板目錄」, 「古册板有處攷」, 「鏤板考」, 「各道册板目錄」 등이 있다. 열거한 책판목록들은 거의 대부분 18세기에 작성된 것이라 그 이전에 출판된 서적들을 반영한다. 책판목록에 수록된 전남지역은 강진, 고흥, 곡성(옥과 포함), 광주, 구례, 나주(남평 포함), 담양(창평 포함), 무안, 보성, 순천(낙안, 승주, 여수, 광양, 좌수영 포함),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우수영 포함), 화순(동북, 능주 포함)이다.¹⁵⁾

「册板置簿册」은 7개도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데, 영조 16년(1740)경에 작성된 것이다. 책판의 有無,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 소장처를 기록하고 있다. 순천조에 수록된 『靑露集』과 『四傳春秋』는 全州에 소재하고 있음을 기재하였고, 담양조에 수록된 『禮說』은 '無板子'로 표시하고 있다. 「三南所藏册板」은 필사본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즉 三南에 소장된 책판을 기록한 것인데 영조 19년(1743)경에 편찬된 것이다. 상단에는 책판의 서명을 적고, 하단에는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과 책판의 剝缺 상태를 기록하였다. 「諸道册板錄」은 영조 26년(1750)경에 작성된 것으로, 삼남지방과 함경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을 수록하였다. 인출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전라도 책판기록 말미에는 종이의 생산지와 각수들의 賃金이 기록되어 있다. 「完營册板目錄」은 필사본으로 영조 35년(1759) 2월에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 등 각 도의 감영과 지방에 보존되어 있는 책판을 수록하였는데, 지명 아래에 서명, 册紙의 수량, 책판의 剝缺 상태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전남지방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의 종수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목록이다. 「嶺湖列邑所在册板目錄」은 필사본으로 영조 36년(1760)경에 작성되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책판목록이다. 「各道册板目錄」은 정조 2년(1778)년경에 편찬한 것으로, 7도와 교서관 등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서명, 册紙의 수량, 책판의 剝缺 상태를 기록하였다. 「古册板有處攷」은 숙종조에서 편찬된 『海東地志』의 내용 중 책판에 관한 기록만을 필사한 것인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의 책판을 수록하고 권말에 豹庵 姜世晷의 약력을 기록하였다. 수록된 책판의 종수가 가장 적는데, 수록된 곳은 나주, 영광, 영암, 광주, 담양, 장성, 동북이다. 「鏤板考」는 正祖의 명에 의하여 동왕 20년(1796)에 徐有榘가 편찬한 官撰 책판목록이다. 책판의 소장처를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各道册板目錄」은 憲宗 6년(1840)에 작성하였는데, 7도의 책판을 수록되었다. 서명, 완결여부, 용입지의 수량 등이 차례로 기록

14)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册板目錄(서울: 보경문화사, 1995).

15) 조선시대 전남지역의 옛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강진 : 金陵, 고흥 : 興陽, 구례 : 鳳城, 보성 : 山陽, 능주 : 綾城, 화순 : 烏城, 순천 : 昇平.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책판목록은 18세기에 작성된 것임에 반해 이 목록은 가장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 나주조의 『雅頌』, 『朱書百選』, 영암의 『山堂集』, 『湖山集』은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동부권(곡성(옥과 포함), 구례, 순천(낙안, 승주, 여수, 광양, 좌수영 포함))

<표 1> 책판목록에 수록된 동부권(순천, 구례, 곡성)의 책판

목록 지명	冊板 置簿冊	三南所藏 冊板	諸道 冊板錄	完營 冊板目錄	嶺湖列邑所 在冊板目錄	各道 冊板 目錄	鏤板考	各道 冊板 目錄
谷城 (玉果: 옥)	喪禮備要 黃孤山書 大東書法 古文後集 이상(옥)	喪禮備要 古文後集 黃孤山書 大東書法 이상(옥)	古文後集 (옥)	喪禮備要 古文後集 黃孤山書 大同書法 이상(옥)	黃孤山書 (옥) 大書(옥)		晦軒實記 (곡성현장) 古文珍寶 (옥과현장)	
求禮	無冕錄 韓護千字	藤王閣序	藤王閣序	八道地圖 藤王閣 韓護千字(無) 大千字(無)		藤王閣序		
順天 (樂安: 낙, 左水營: 좌)	史略 苔川集 靑露集 (在全州) 四傳春秋 (在全州) 篆千字 이상(좌) 天下地圖 擊蒙要訣 景賢錄 法帖 退溪草書 昇平誌 剪燈新話 史略 詩傳 東國地圖 楊蓬萊屏 風書 出師表(낙)	楊蓬萊屏 風書 尤齋大字 九曲筆書 昇平誌 晉州敍事 千字 後出師表 (낙) 忠武公家集 (좌)	楊蓬萊屏風 書 尤齋大字 九曲筆書 昇平誌 晉州敍事 千字 前後出師表 (낙) 忠武公家集 (좌) 史略(좌)	史略 忠武錄家乘 擊蒙要訣(無) 若川集 이상(좌) 天下地圖 昇平誌 千字 楊蓬萊屏風書 景賢錄 龍洲集 九曲筆書 擊蒙要訣 尤齋大字 晉州敍事 史略 退溪草書 東國地圖 法帖 剪燈新話 書傳 出師表(낙) 大明法數(낙)	擊蒙要訣 昇平誌 景賢錄 退溪草書 剪燈新話 史略(좌)	楊蓬萊屏 風書 尤齋大字 九曲筆書 昇平誌 晉州敍事 千字 出師表(낙) 忠武公家集 (좌)	晉州敍事 (순천부장) 景賢錄 (옥천서원장) 擊蒙要訣 (옥천서원장) 昇平誌 (지봉서원장) 龍洲集 (송광사장) 忠武公家乘 (충민사장) 十九史略通考 (호남좌절도 영장)	龍洲集

동부권에 속하는 지역은 순천, 구례, 곡성이다. 조선시대 순천부는 낙안, 승주군, 여수, 광양지역과 좌수영까지 포함하는 곳이다. 전남의 동쪽에 위치하고 섬진강과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남도과 접해있으며, 지리산, 백운산, 조계산 등으로 둘러싸인 높은 산간지역으로 섬진강과 주요 지류인 보성강이 흐르지만 이들 하천의 연안에는 넓은 평야가 발달하지 못하였다.¹⁶⁾ 조선후기 여러 책판목록에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라남도의 향토문화(상)(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p.55.

수록된 책판 중 중복된 것과 임진왜란 이전부터 소장해오던 책판을 제외하면, 곡성은 5종, 구례는 5종, 순천은 24종으로 총 34종이다. 구례의 『韓護千字』, 『大千字』는 '無'로 표시되어 책판이 없어졌거나 이동했음을 알 수 있고, 좌수영에 소장된 책판 중 『史略』은 누판고에 수록된 『十九史略通考』의 약칭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동부권의 책판을 나타내고 있다.

나. 서부권(나주(남평 포함), 무안, 영광, 영암)

서부권에 속하는 지역은 나주, 영광, 무안, 영암이다. 지리적으로는 영산강 유역과 서해안에 인접한 평야지대이다. 나주는 전남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지역이었으며 조선후기에는 38개면과 현 신안군 일대 30여개 이상의 島嶼를 관할하였다. 담양에서 발원하여 목포만으로 유입되는 영산강 유역은 선사시대의 유적이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문화의 축적이 이루어진 곳이다.

목록간 중복된 것과 임진왜란 이전부터 소장해오던 책판을 제외하면, 나주는 27종, 영광은 10종, 무안은 7종, 영암은 17종으로 총 61종이다. 1840년경에 작성된 『各道冊板目錄』의 나주조에는 『雅頌』과 『朱書百選』이 수록되어 있다. 이 2종은 정조 말기에 편찬되어 처음으로 목록에 수록된 것이다. 『누판고』의 책판을 살펴보면, 영광과 무안의 경우 영광현과 무안군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지만 영암의 경우, 책판의 소장처가 녹동서원, 진씨가, 백씨가, 강씨가, 도갑사 등 다양함을 보인다. 영광조에 수록된 『睡隱集』과 『看羊錄』은 누판고에서 영암조의 강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광에서 영암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서부권의 책판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책판목록에 수록된 서부권(나주, 영광, 무안, 영암)의 책판

목록 지명	冊板 置簿冊	三南所藏 冊板	諸道 冊板錄	完營 冊板目錄	嶺湖列邑 所在冊板 目錄	各道 冊板目錄	古冊板有 處攷	鏤板考	各道 冊板 目錄
羅州 (南平 : 남)	中庸 中庸諺解 兵衛森 洪武正韻 野言 歸去來辭 論語大全 大學 大學諺解 이상(남) 林白湖集 或問大學 遲川集 中庸 心經諺解 三韻通考 許眉叟集	兵衛森 (남)	記言 兵衛森 (남)	兵衛森 篆字(闕失) 洪武正韻(闕失) 野言 中庸 中庸諺解 大學 大學諺解 論語大全 讀語隨抄 春種(闕失) 歸去來辭(闕失) 이상(남) 林白湖集 左傳鈔評 謹齋集 記言集 遲川集 九雲夢 戰國冊 三韻通考 中庸	野言 兵衛森 歸去來辭 洪武正韻 이상(남) 或問大學 心經 白湖集 李商隱集 周易啓蒙 春種 遲川集 心經諺解 九雲夢 左傳	兵衛森남	記言集	記言 (別集 포함) (미천서원장)	雅頌 朱書百選 記言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목록 지명	冊板 置簿冊	三南所藏 冊板	諸道 冊板錄	完營 冊板目錄	嶺湖列邑 所在冊板 目錄	各道 冊板目錄	古冊板有 處攷	鏤板考	各道 冊板 目錄
				心經諺解 或問大學					
務安	大千字 赤壁賦	梅軒集 懶齋集 愚得錄 玉壺水 赤壁草書	梅軒集 懶齋集 愚得錄 玉壺水 赤壁草書	梅軒集 赤壁賦 愚得錄 玉壺水 仁川集 懶齋集 大千字(無)	大千字	梅軒集 懶齋集 愚得錄 玉壺水 赤壁草書		梅軒集 懶齋集 愚得錄 이상 (무안현장)	
榮光	儀節家禮 息菴集 杜詩 陶靖節 篆千字 三韻通考 睡隱集	陶靖節集 息菴集 睡隱集	陶靖節集 息菴集 睡隱集	杜詩 儀節家禮 息菴集 韓濩千字 陶靖節 睡隱集 篆千字 三韻通考	儀節家禮 睡隱集 陶靖節集 篆千字 看羊錄		息菴集 陶靖節集	陶靖節集 息菴遺稿 이상 (영광군장)	
榮岩	綱鑑會要 文谷集 同春堂文集 (在黃山)	玉峰集 歸去來辭 唐音小詩 感興詩 韓石峯廬 山瀑布 文谷集	玉峰集 歸去來辭 唐音小詩 感興詩 韓石峯廬 山瀑布 文谷集	文谷集 煙村集 歸去來辭 感興詩 唐音 玉峰詩 韓石峯廬山瀑布 村隱集(無) 綱鑑會要 石川集	綱鑑會要	玉峰集 歸去來辭 唐音小詩 感興詩 韓石峯廬 山瀑布	文谷集 綱鑑會要 煙村集 石川集 素隱集 (俱在道 岬寺) 玉峰集 (在玉泉 面)	煙村事蹟 (낙동서원) 素隱湖山合集 (영암진씨가장) 玉峰集 (영암백씨가장) 睡隱集 看羊錄 (영암강씨가장) 文谷集 石川集 이상(도갑사장)	煙村集 山堂集 文谷集 素隱集 湖山集

다. 남부권(강진, 장흥, 보성, 고흥, 해남)

<표 3> 책판목록에 수록된 남부권(강진, 장흥, 보성, 고흥, 해남)의 책판

목록 지명	冊板 置簿冊	三南所藏 冊板	諸道 冊板錄	完營 冊板目錄	嶺湖列邑 所在冊板 目錄	各道 冊板目錄	鏤板考	各道 冊板 目錄
康津	宣廟御筆 妙法華經			宣廟御筆 妙法蓮華經 大禹篆字 朱子葛筆 顏真書集				
高興 (興 陽)	家禮			家禮	家語 家禮 野史 古文珍寶			
寶城	爲學之方 屏風書 金球書 通村集	通村集	通村集	爲學之方 屏風書 通齋集 金球書 趙氏書法 愛蓮書 玉峯書 石峯書 草書	爲學之方 石峯書 金球書		通村集 (개흥사장)	
長興	石峯書 再造藩邦 西涯樂府	老峯集	老峯集 西涯樂府	西涯樂府 大千字 石峯書(無) 再造藩邦(無) 老峯集	再造藩邦志 石峯書	西涯樂府 老峯集	西涯擬古樂府 (장흥군장) 老峯集 (연곡서원장)	

海南 (右水營 우)	藤王閣 大東書法 이상(우) 性理大全 三略 玉峯書	出師表(우) 春種 初庵集 孤山遺藁 兵衛森	出師表(우) 春種 初庵集 孤山遺藁 兵衛森	大同書法 出師表 擊蒙要訣(無) 春種書法 陣圖 太虛亭集 藤王閣 이상(우) 春種 初庵集 兵衛森 史略 玉峯集	篆大字(우) 吳子草 玉峯書 三略 性理大全 粉子屏風書	出師表(우) 春種 初庵集 兵衛森	初庵集 (해남현장) 孤山遺集 (해남윤씨가장)	初庵集 孤山集
---------------	---	------------------------------------	------------------------------------	--	---	----------------------------	-----------------------------------	------------

남부권에 속하는 지역은 강진, 장흥, 보성, 고흥, 해남이다. 기후가 따뜻하고 탐진강과 강진만, 보성만,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곡창지대이다. 위백규, 박광진, 안방준, 윤선도 등 조선후기 유명한 학자와 의병장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외부의 침입이 자주 있었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유배지이기도 하였다. 목록간 중복된 것과 임진왜란 이전부터 소장해오던 책판을 제외하면, 강진 4종, 장흥 5종, 보성 10종, 고흥 4종, 해남 18종으로 총 41종이다. 『완영책판목록』에서 가장 많은 책판을 수록하고 있어서 각 지역의 책판소장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진과 고흥의 경우 여러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 보성과 해남의 경우 『완영책판목록』에서는 각각 9종과 12종이 수록되어 있지만, 『누관고』에서는 각각 1종과 2종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책판의 변화가 있었거나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에서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남부권의 책판을 나타내고 있다.

라. 북부권(광주, 담양, 장성, 화순)

<표 4> 책판목록에 수록된 북부권(광주, 장성, 담양, 화순)의 책판

목록 지명	冊板 置簿冊	三南所藏 冊板	諸道 冊板錄	完營 冊板目錄	嶺湖列邑 所在冊板 目錄	各道 冊板目錄	古冊板 有處攷	鏤板考	各道冊 板目錄
光州	谿谷集 詩傳 詩傳諺解 詞訟錄 齋峯集 正氣錄 往復書 大明律 莊子 錦湖集 赤壁賦 經國大典 鶴谷集 童蒙先習		白麓集 齊峰集 遊山錄 錦湖集 訥齋集 晴沙集 正氣錄	白麓集 齊峰集 正氣錄 錦湖集 赤壁賦 遊山錄 訥齋集 晴沙集 經國大典 谿谷集 詩傳 詩傳諺解 詞訟錄 莊子 往復書 童蒙先習 鶴谷集	詞訟錄 童蒙先習 鶴谷集 莊子 大明律 谿谷集 往復書 (經國)大典 三綱(行實) 齋峯集	白麓集 齊峰集 遊山錄 錦湖集 訥齋集 晴沙集 正氣錄	谿谷集 錦湖集 訥齋集 (并在雞窓)	經國大典 谿谷漫筆 谿谷集 이상(광주목장) 兩先生往復書 (증심사장) 金忠壯遺事 (의열사판) 齊峰遊石錄 齊峰集 正氣錄 白麓集 晴沙集 이상(포충사장) 訥齋集 錦湖遺稿 이상(교공장)	
潭陽 (昌平 :창, 서흥사 :서)	楞嚴經 三韻通考 小學正文 上樑文 이상(창)	松江集 崎岩集 楞嚴經 이상(창)	松江集 崎岩集 楞嚴經 이상(창)	三韻通考 小學正文 上樑文(失火) 春種(失火) 松江集 崎岩集 楞岩經	近思錄 古文前集 晦谷集 小學正文(창) 松江集(창)	松江集 崎岩集 楞嚴經 이상(창)	晦谷集 吳子集	萬行首楞嚴經 (창명현장) 松江文稿 崎岩集 이상	松江集 (창)

목록 지명	冊板 置簿冊	三南所藏 冊板	諸道 冊板錄	完營 冊板目錄	嶺湖列邑 所在冊板 目錄	各道 冊板目錄	古冊板 有處攷	鏤板考	各道冊 板目錄
	畸庵集 畸庵續集 松江集 春種 이상(서) 古文前集 三略 禮說(無) 吳子 近思錄			畸岩續集(無) 이상(창) 近思錄 古文眞寶 石公 吳子 晦谷集 史略 書傳 三略 禮記	上樑文(창) 畸岩集(창)			(서봉사장) 明心寶鑑 (용흥사장)	
長城	澤堂集 (移居金提) 象村集 臣錄 漢雋 孔子通記	河西集 象村集 漢雋	河西集 象村集 漢雋	漢雋 河西集 孔子通記 臣錄 象村集		河西集 象村集 漢雋	漢雋 象村集 河西集	漢雋 象村集 (장성부장) 河西集 (필암서원장) 別集 (필암서원장)	河西集
화순 (능주: 능, 화, 동북 포함)	三綱行實 註唐音 玉樞經 黃山谷集 이상(능) 四書諺解 史略 金剛經 林唐集(無) 石峯書 安平書 朱子書 四端七情 孝悌忠信 鵝溪集 近思錄 石樓集(無)	三綱行實 (능) 靜岩集 (능) 靜岩碑 (능)	三綱行實 (능) 靜岩集 (능) 靜岩碑 銘(능)	三綱行實 徐花潭 靜菴集 註唐音 黃山谷 玉樞經 靜菴碑銘 이상(능) 四書諺解 金剛經(失火) 林塘集 石峯書 安平書(失火) 朱子書 四端書 孝悌忠信 鵝溪集(失火) 石樓集(失火) 史略 近思錄(失火)	黃山谷集 (능) 註唐音(능) 玉樞經(능) 赤壁賦(화)	三綱行實 (능) 靜菴集 (능) 靜菴碑銘 (능)	三綱行實 (능) 靜菴集 (능) 虞註杜律 (화)	三綱行實圖 (능주목장) 山谷集 (능주목장) 虞註杜律 (화순현) 靜菴集 (죽수서원장)	靜菴集 능 唐詩 (능)

북부권에 속하는 곳은 광주목을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담양, 장성, 화순이다. 화순은 동북, 능주를 포함하는 곳이다. 극락강, 석고천, 풍영정천, 광주천, 황룡강, 화순천 등 수량이 풍부하고 평야가 넓어서 예로부터 인구가 많이 거주하였고, 조선중기 호남사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다. 김인후, 송순, 유희춘, 정철, 양산보, 고경명, 최경희 등 학자와 의병장을 많이 배출하였다.

목록간 중복되거나 조선 전기에 판각된 책판을 제외하면, 광주 20종, 담양 18종, 장성 6종, 화순 21종으로 총 65종이다. 4개의 권역 중 가장 활발한 판각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완영책판목록』의 담양조와 동북조에서는 책판이 각각 2종과 5종이 失火되었음을 기재하고 있고, 『누판고』의 광주조에는 책판의 소장처가 광주목, 증심사, 의열사, 포충사, 교궁 등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으며, 창평의 경우 서봉사와 용흥사 등 사찰이 책판소장처로 수록되어 있다. <표 4>에서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북부권의 책판을 나타내고 있다.

2. 현전본

국내의 대학도서관의 고서목록과 온라인목록, 개인문고, 선행연구, 지자체의 문화원에서 발행한 자료 등을 조사하여 권역별 현전본서목을 작성하였다. 조사결과 현전본은 동부권 28종, 서부권 67종, 남부권 67종, 북부권 74종 등 총 236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동부권(곡성, 구례, 순천)

조선후기 곡성에서는 4종, 구례에서는 6종, 순천에서는 18종을 간행하여, 동부권에서는 총 28종이 간행되어 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동부권 현전본의 서목이다.

<표 5> 조선후기 동부권(곡성, 구례, 순천) 현전본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時期	冊數	所藏處
史部 譜系類	錦山金氏族譜	錦山金氏譜所	谷城 錦山金氏譜所	木活字本	1897	4卷4冊	국중
集部 別集類	忍齋集	洪暹 著	玉果	木板本	1712	4卷4冊	규장각
史部 傳記類	晉陽鄭氏文獻世乘	鄭淵德	谷城 梧枚	木板本	1909	2卷1冊	고려대
史部 傳記類	晦軒實記	安克權	谷城 梧枝講堂	木板本	1845	2卷2冊	道東洞
史部 傳記類	菊軒實記	吳濬東	鳳城 蛇岬	木活字本	1857	1冊	국중
史部 譜系類	潭陽鞠氏世譜	鞠煥文 等	鳳城 百島	木活字本	1853	4卷5冊	계명대
史部 譜系類	潭陽鞠氏世譜	潭陽鞠氏譜所	求禮(鳳城)	木活字本	1894	5卷6冊	국중
史部 譜系類	密陽朴氏世譜	朴載善 等	求禮 蓮洞	木活字本	1899	12冊(零本)	계명대
集部 別集類	虛白亭文集	洪貴達	求禮	木板本	1611	3卷3冊	고려대
史部 傳記類	華東忠義錄	崔鍾和	求禮(鳳城)	木活字本	1905	2冊	국중
集部 別集類	牧隱集	李穡	順天	木板本	1626	55卷24冊	규장각
史部 別史類	史略要解	趙學洙	昇平 心書齋	木活字本	1910	1冊	국중
史部 譜系類	淳昌趙氏世譜	趙經孝	順天 相好亭	木活字本	1861	8冊	하버드대
史部 傳記類	淳昌趙氏世譜文獻考		順天 相好亭	木活字本	1872	1冊	연세대
史部 地理類	順天續誌	金允植	順天 養士齋	木活字本	1881	2卷2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昇平文獻錄	張奎燮	順天	木活字本	1900	1冊	하버드대
史部 地理類	昇平誌	李晬光	順天	木板本	1618	2卷1冊	고려대
史部 地理類	新增昇平誌	洪重徵	順天	木板本	1729跋	2卷1冊	규장각
集部 別集類	十清先生集	金世弼	順天	木活字本	1894	1冊	영남대
史部 地理類	廬山誌	徐丙壽	突山 鄉校	木活字本	1899	1冊	전남대
史部 地理類	麗水誌		麗水 會儒所	木活字本	1902	1冊	규장각
史部 譜系類	延安車氏世譜	車憲基 等	順天 鰲川書院	木活字本	1824	6卷5冊	장서각
史部 譜系類	延安車氏世譜	車憲基 等	順天 鰲川書院	木活字本	1802	10冊(零本)	계명대
史部 傳記類	五忠錄		順天 玉溪書院	木活字本	1830	2卷1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龍洲遺稿	趙綱	順天	木板本	1703	23卷12冊	규장각
集部 總集類	月城世稿	鄭東烈	順天 景賢堂	木板本	1893	8卷2冊	국중
史部 雜史類	晉州敍事	安邦俊	順天	木板本	미상	1冊	고려대
史部 傳記類	忠武公家乘	李弘毅	左水營	木板本	1716	6卷2冊	규장각
集部 別集類	苔川集	金地粹	順天	木板本	17세기	3卷2冊	장서각

나. 서부권(나주, 무안, 영광, 영암, 함평)

조선후기 나주에서는 37종, 무안 6종, 영광 15종, 영암 6종, 함평 3종으로 서부권에서는 총 67종이 간행되어 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서부권 현전본의 서목이다.

<표 6> 조선후기 서부권(나주, 무안, 영광, 영암, 함평) 현전본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時期	冊數	所藏處
史部 譜系類	慶州李氏世譜		羅州 永慕閣	木活字本	1910	2冊(零本)	영남대
史部 傳記類	龜城公實記	全守良	羅州 南尚齊舍	木活字本	1855	1卷1冊	국중도
集部 別集類	謹齋先生集	安軸	羅州	木板本	1740	1冊(零本)	경북대
集部 別集類	錦溪集	魯認	錦溪院	木活字本	1823	8卷2冊	장서각
集部 別集類	錦南先生文集	崔溥	羅州	木板本	1725	5卷2冊	장서각
史部 傳記類	錦城三綱錄	李寅采	錦城	木活字本	1802	3卷2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錦城續三綱錄		羅州鄉校	木活字本	1893	3卷2冊	국중
史部 地理類	錦城邑誌	李麟相	羅州	木活字本	1897	3卷2冊	고려대
史部 傳記類	錦城孝烈錄		羅州 多寶寺	木活字本	1803	1冊	간송
集部 別集類	記言	許穆	羅州 眉泉書院	木板本	1689	95卷21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羅州羅氏族譜	羅斗秋 等	羅州邑內	木板本	1721	2卷2冊	계명대
史部 譜系類	羅州羅氏族譜	羅基漢	羅州	新鉛活字本	1910	1冊	전남대
史部 地理類	羅州花巖書院榮建目錄		羅州	木活字本	1811	3卷1冊	계명대
集部 別集類	德陽遺稿	奇遵	羅州牧	木板本	1606	3卷1冊	버클리대
史部 政法類	萬曆四年丙子司馬榜目	禮曹	錦城縣	木板本	1646	1冊	국중
史部 譜系類	瑞興金氏族譜	金秉燮 等	羅州	木活字本	1870	7卷7冊	하바드대
子部 儒家類	薛文清公讀書錄	薛瑄(明)	羅州牧	木活字本	1626	3卷1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利川徐氏族譜	利川徐氏譜所	南平 松巖齋	木活字本	1809	7卷7冊	국중
經部春秋類	左傳鈔評	穆文熙(明)批輯	羅州 午門	木板本	1724	12卷6冊	고려대
子部 儒家類	朱書百選	正祖 編	錦城鄉校養士齋	木板本	1800	6卷2冊	녹우당
史部 地理類	智島郡邑誌	朴畿緒	羅州	木活字本	1908	1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遲川集	崔鳴吉	羅州	木板本	1664	19卷 8冊	중앙대
經部小學類	千字文	周興嗣(梁)	羅州牧	木板本	1606	1冊	성암문고
集部 別集類	澤堂先生集	李植	南平	木板本	1674序	34卷17冊	연세대
史部 傳記類	坡平尹氏三綱錄	尹燐圭	羅州	木活字本	1887	1冊	장서각
史部 譜系類	咸平李氏族譜	李敏錫	羅州粉土洞墓閣	木活字本	1896	26卷19冊	장서각
史部 譜系類	海南金氏族譜	金允澤	羅州 思慕齋	石印本	1898	5卷5冊	하바드대
集部 別集類	海史詩集	李敦冕	草洞南坡亭	木活字本	1896	11卷2冊	영남대
集部 別集類	白湖集	林梯	羅州	木板本	1621	4卷2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沙潭遺稿	羅德元	追遠堂	木活字本	1898	2卷1冊	영남대
集部 別集類	莎隱遺稿	李珪緒	草洞 南坡亭	木活字本	1896	3卷1冊	성균관대
集部 別集類	西山遺稿	柳自湄	羅州	木活字本	1900	4卷1冊	간송문고
集部 別集類	石門集	吳以翼	羅州道林講堂	木活字本	1874	5卷2冊	하바드대
集部 別集類	松川集	楊應鼎	羅州朝陽里舍	木活字本	1842	7卷3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滄洲遺稿	羅武松	羅州追遠堂	木活字本	1898	2卷1冊	영남대
集部 別集類	虛白堂集	成倪	羅州	木活字本	1842	8冊	영남대
集部 小說類	九雲夢	金萬重	羅州午門	木板本	1725	1冊	정규북
集部 別集類	懶齋集	蔡壽	務安	木板本	1674	2卷1冊	규장각
集部 別集類	梅軒集	權遇	務安	木板本	1722	6卷2冊	국중
集部 別集類	松齋先生遺稿	羅世鑽	務安 松林書院	木板本	1830	4卷2冊	고려대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時期	冊數	所藏處
集部 別集類	愚得錄	鄭介淸	務安	木板本	1681	3卷4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利川徐氏族譜	徐德心 等	務安 月山祠	木活字本	1846	4卷5冊	국중
史部 譜系類	利川徐氏族譜	徐容善 等	務安 月山齋	木活字本	1897	6卷7冊	국중
集部 別集類	看羊錄	姜沆	靈光	木板本	1654	1冊	이을호
史部 別史類	綱鑑會要	姜沆	靈光	木板本	1882	1冊(缺帙)	전남대
史部 譜系類	慶州金氏世譜	金龜浩 等	靈光 馬嶺	木活字本	1898	3卷3冊	국중
史部 譜系類	高興柳氏波譜	未詳	靈光 鹿洞內舍	木活字本	1899	1冊	국중
史部 譜系類	高興柳氏派譜	柳鎮寬 等	靈光 枕流亭	木活字本	1897	1冊	계명대
史部 譜系類	金海金氏派譜	金榮善 編	靈光	木活字本	1897	5卷6冊	하버드대
集部 別集類	文谷集	金壽恒 著	靈光	木板本	1702跋	28卷14冊	고려대
經部 禮類	文公家禮儀節	丘濬(明)	靈光郡	木板本	1626	8卷6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睡隱集	姜沆 著	靈光	木板本	1658序	4卷3冊	규장각
集部 別集類	息庵先生遺稿	金錫胄 著	靈光	木板本	1697	25卷12冊	규장각
史部 地理類	靈光邑誌	申泰寬 等	靈光	木活字本	1897	1冊	영남대
史部 譜系類	長興林氏世譜	林益憲	靈光 秋晚齋	木活字本	1875	4卷4冊	국중
集部 別集類	知止堂遺稿	宋欽	靈光 壽岡書院	木板本	1725	5卷1冊	규장각
經部 小學類	千字文	未詳	靈光	木板本	1661	1冊	규장각
史部 譜系類	淸州韓氏世譜	韓龍鎮 等	靈光 慕遠齋	木活字本	1899	18卷10冊	국중
集部 別集類	溪陰集	趙彭年	靈巖	木活字本	1899	2冊	국중
集部 別集類	文谷集	金壽恒	靈巖 道岬寺	木板本	1702	28卷13冊	성균관대
集部 別集類	山堂集	崔忠成	靈巖 鹿洞書院	木板本	1805	1冊	녹동서원
集部 別集類	石川集	林億齡	靈巖 道岬寺	木板本	1619序	7卷3冊	고려대
史部 傳記類	煙村先生遺事	崔德之	靈巖 鹿洞書院	木板本	1805	1冊	연세대
集部 別集類	煙村集	崔德之	靈巖 鹿洞書院	木板本	1805	1冊	녹동서원
集部 總集類	四梅堂集	權尙夏 等	咸平五水山精舍	木活字本	1880	2卷1冊	국중
史部 地理類	續修咸平鄉校隨行案	咸平鄉校	咸平鄉校	木活字本	1891	1冊	국중
史部 譜系類	竹山安氏族譜	安時良 等	咸平羅山愚齋	木活字本	1907	5卷5冊	계명대

다. 남부권(강진, 고흥, 보성, 장흥, 해남)

조선후기 강진에서는 7종, 고흥 4종, 보성 23종, 장흥 26종, 해남 7종으로 남부권에서는 총 67종이 간행되어 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남부권 현전본의 서목이다.

<표 7> 조선 후기 남부권(강진, 고흥, 보성, 장흥, 해남) 현전본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時期	冊數	所藏處
史部 譜系類	江陵劉氏族譜	劉秉贊	康津	木活字本	1898	9冊	계명대
史部 譜系類	錦南崔先生文集	崔簿	康津 羅川墓閣	木活字本	1896	3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西疇集	李彬	康津 月岡祠	木活字本	1849	1冊	하버드대
史部 地理類	秀巖誌	李圭夏 等	康津 秀巖書院	木活字本	철종연간	2卷1冊	국중
史部 譜系類	昌寧曹氏族譜		康津 鷄峙	木活字本	1901	3卷3冊	국중
史部 譜系類	淸州金氏族譜	金錫坤 等	康津 且耕洞	木活字本	1875	7卷8冊	국중
史部 譜系類	海南尹氏族譜	尹南美 編	康津 海南尹氏 追遠堂	木板本	1702	4卷3冊	국중
集部 總集類	蘇文抄	蘇軾(宋)	高興	木活字本	1616	1冊(零本)	규장각
史部 雜史類	隱峯野史別錄	安邦俊	興陽鄉校	木板本	1663	1冊	규장각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時期	冊數	所藏處
子部 儒家類	標題句解孔子家語	王廣謀(元)	興陽鄉校	木板本	1603	3卷2冊	고려대
史部 傳記類	興陽三綱錄	李龍相	興陽校宮	木活字本	1908	2卷2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慶州李氏世譜	李圭亮	寶城德音竹裏館	木活字本	1902	12卷12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葵庵元集	任長源	寶城	木活字本	1883	9卷3冊	하버드대
史部 譜系類	金海金氏族譜	金海金氏譜所	寶城 石溪齋	木活字本	1899	5冊	국중
集部 別集類	東溪集	朴春長	寶城 向陽洞	木活字本	1896	4卷2冊	하버드대
集部 別集類	遷齋先生文集	鄭汝諧	寶城 望美齋	木活字本	1903	1卷1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梅軒集	廉梯臣	寶城 梁山祠	木活字本	1827	1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寶城宣氏賜額五忠臣錄	宣永淑 等	寶城 五湖	木活字本	1900	1冊	국중
史部 傳記類	寶城宣氏忠義孝烈錄	宣俊采	寶城 五湖	木活字本	1900	1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寶城宣氏派譜		寶城 道開	木活字本	1876	3卷3冊	국중
子部 兵家類	三略直解	劉寅(明) 鮮	寶城 竹川書堂	木板本	1600	1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石農集	吳震泳	寶城 大溪書院	新式活字本	1864	32卷12冊	영남대
集部 別集類	小松遺稿	李志容	寶城	木活字本	1898	8卷3冊	하버드대
子部 儒家類	小學集說	朱熹(宋)	山陽 竹川書堂	木板本	1600	1冊(零本)	경북대
集部 別集類	睡隱集	姜沆	寶城 立石齋	木活字本	1868	4卷4冊	계명대
史部 地理類	新增山陽誌	安圭益...等	寶城	木活字本	1902	1冊	국중
集部 別集類	兩蹇堂文集		山陽竹川	木活字本	1896	3卷1冊	국중
集部 別集類	隱峰先生倡義錄	安昌翊	寶城 大溪書院	木活字本	1864	1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隱峰全書	安邦俊	寶城 大溪書院	木活字本	1864	40卷20冊	규장각
集部 別集類	竹川先生文集	朴光前	寶城 龍山書院	木活字本	1809	4卷3冊	규장각
集部 別集類	忠敬公梅軒廉先生遺集	廉梯臣	寶城 梁山祠	木活字本	1827	1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耽津崔氏族譜	崔斗鉉	寶城	木活字本	1907	3冊	국중
史部 譜系類	坡州廉氏波譜		寶城 梁山院	木活字本	1846	1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咸安尹氏世譜	尹錫祺 等	寶城 矢峙	木活字本	1906	5卷6冊	국중
史部 譜系類	慶州金氏世譜	金是佐 等	長興 靑龍舍	木活字本	1902	5卷5冊	국중
史部 譜系類	慶州金氏族譜	慶州金氏譜所	長興 道高洞墓閣	木活字本	1893	4卷4冊	국중
史部 譜系類	光山金氏族譜	光山金氏譜所	長興 杏崗齋	木活字本	1901	3卷3冊	국중
集部 別集類	岐峯集	白光弘	長興安壤舟山	木活字本	1899	5卷2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南坡集	李僖錫	長興 永錫齋	木活字本	1898	8卷3冊	계명대
史部 譜系類	南平文氏族譜		長興 月川書院	木活字本	1731	3卷3冊	국중
集部 別集類	晚守齋集	李敏琦	長興 龍溪	木活字本	1898	6卷3冊	고려대
集部 詞曲類	西涯擬古樂府	李東陽(明)	長興	木板本	1613	3卷3冊	충남대
史部 譜系類	水原白氏世譜	白永直	長興大也谷齋室	木活字本	1891	8卷12冊	장서각
史部 譜系類	水原白氏世譜	未詳	長興大也谷齋閣	木活字本	1876	3卷4冊	하버드대
史部 別史類	新編十九史略續集大明紀	魏伯珪	長興茶山精舍	木活字本	1791	2卷2冊	고려대
史部 地理類	新編標題纂圖寶瀛誌	魏伯珪	長興(存齋宗家)	木板本	1882	2卷1冊	국중
史部 傳記類	靈光金氏四孝錄	靈光金氏門中	長興 月山齋	木活字本	1908	1冊	국중
集部 別集類	烏谷集	李采根	長興	木活字本	1899	5卷2冊	하버드대
史部 傳記類	仁川李氏名碩錄	李源鼎	長興 三思亭	木活字本	1906	6卷3冊	국중
史部 譜系類	長興馬氏世譜	馬衡模 等	長興 忠顯祠	木活字本	1840	2冊(缺帙)	전북대
史部 譜系類	長興馬氏世譜	馬仁來 等	長興 鶴村永慕堂	木活字本	1868	4卷4冊	전북대
史部 譜系類	長興魏氏族譜	魏道亨	長興 長川齋	木活字本	1842	6卷6冊	하버드대
史部 譜系類	長興魏氏族譜	魏相基	長興 長川齋	木活字本	1883	13卷9冊	하버드대
史部 地理類	長興邑誌	安圭仁 等	長興 石川齋	木活字本	1910	2冊	국중
史部 譜系類	長興任氏世譜	長興任氏譜所	長興 悅樂齋	木活字本	1892	10卷10冊	국중
集部 別集類	天放劉先生遺集	劉好仁	長興 杏崗書院	木活字本	1886	1冊	하버드대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時期	冊數	所藏處
史部 譜系類	淸州金氏世譜	金珍圭	長興 追慕齋	木活字本	1898	10卷10冊	하버드대
集部 別集類	翠谷集	曹汝欽	長興 安壤谷	木活字本	1899	2卷1冊	국중
史部 譜系類	河東鄭氏波譜		長興 松山	木活字本	1901	2卷1冊	장서각
史部 傳記類	海州崔氏世德錄	崔三錫 等	長興	木活字本	1884	2卷2冊	계명대
集部 別集類	孤山遺稿	尹善道	海南	木板本	1711	6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蘆河先生文集	朴模	海南	木活字本	1909	4卷3冊	하버드대
集部 別集類	玉峰詩集本集	白光勳	海南	木板本	1611	3卷2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玉峰詩集別集	白光勳	海南	木板本	1742		옥방박물관
史部 傳記類	節齋先生實記	金宗瑞	海南 三相祠	木活字本	1910	3卷2冊	계명대
集部 別集類	太虛亭集	崔恒	海南	木板本	1707	4卷2冊	규장각
史部 傳記類	海南三綱錄		海南 鄉校	木板本	1895	1冊	녹우당

라. 북부권(광주, 담양, 장성, 화순)

조선후기 광주에서는 22종, 담양 17종, 장성 17종, 화순 18종으로 북부권에서는 총 74종이 간행되어 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북부권 현전본의 서목이다.

<표 8> 조선후기 북부권(광주, 담양, 장성, 화순) 현전본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時期	冊數	所藏處
集部 別集類	谿谷集	張維	光州	木板本	1643	36卷16冊	고려대
史部 地理類	高霧峯遊瑞石錄	高敬命	光州	木板本	1741跋	1冊	전남대
史部 地理類	光州邑誌	朴濟邦 等	光州	木活字本	1879	1冊	연세대
史部 傳記類	金忠壯公遺事	鄭東浚 序	光州 義烈祠	木板本	1790	3卷2冊	규장각
集部 別集類	鎬湖遺稿	林亨秀	光州牧	木板本	1677	2冊	국중
史部 譜系類	羅州吳氏世譜	吳升圭 編	光州 志於齋	木活字本	1892	8卷8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訥齋先生集附錄	朴祥	光州	木板本	1899	2卷1冊	국중
集部 別集類	訥齋集	朴祥	光州	木板本	1843	18卷7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大谷遺稿	金錫龜	光州	木活字本	1902	6卷3冊	연세대
集部 別集類	萬軒先生文集	朴尙玄	光州	木活字本	1898	5卷2冊	하버드대
史部 譜系類	密陽朴氏族譜	朴英載 跋	光州	木活字本	1831	6冊	하버드대
集部 別集類	白麓集	辛應時 等	光州	木板本	1741序	4卷2冊	장서각
經部 詩類	詩傳大全	胡廣 等	光州牧	木板本	辛酉	1冊(零本)	영남대
子部 儒家類	兩先生往復書	李滉, 奇大升	光州	木板本	1788	3卷3冊	규장각
史部 譜系類	長興高氏族譜		光州參議公齋閣	木活字本	1841	33卷7冊	국중
史部 譜系類	長興高氏派譜	長興高氏譜所	光州雙槐堂	木活字本	1901	1冊	국중
史部 傳記類	正氣錄	高敬命	光州	木板本	1796	1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霧峯集	高敬命	光州	木板本	1631序	6卷6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滄浪實蹟	高敬履	鴨保村參議公齋室	木活字本	1841跋	3卷1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滄浪實蹟	高敬履	光州 雙槐堂	木活字本	1857	3卷1冊	장서각
集部 別集類	晴沙集	高用厚	光州	木板本	1680	2卷1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退漁堂遺稿	金鎮商	光山(光州)	木板本	1805	7卷7冊	하버드대
史部 譜系類	光山金氏族譜	光山金氏譜所	潭陽 平章洞	木活字本	1903	7卷7冊	국중
史部 譜系類	光山金氏族譜	光山金氏譜所	秋城(潭陽)	木活字本	1862	6卷6冊	국중
集部 別集類	畸庵集	鄭弘溟	潭陽 芝谷	木板本	1684序	12卷4冊	고려대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時期	冊數	所藏處
集部 別集類	俛仰集	宋純	潭陽 錡谷齋舍	木活字本	1846	8卷5冊	성균관대
集部 別集類	明谷遺稿	吳希道	潭陽 藏溪亭	木活字本	1902	2卷1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眉岩先生集	柳希春	潭陽 義巖書院	木板本	1869跋	20卷10冊	규장각
集部 別集類	石樓遺稿	李慶全	潭陽	木板本	1659	4卷4冊	규장각
史部 傳記類	瀟灑園事實	鄭鎭河	潭陽 竹林齋	木板本	1755	13卷3冊	가사문학관
集部 別集類	松江集	鄭澈	潭陽 芝谷	木板本	1894	11卷7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新平宋氏世譜		潭陽俛仰亭	木活字本	1897	3卷3冊	전주대
集部 別集類	野隱遺稿	李鼎泰	潭陽 大崎	木活字本	1907	4卷2冊	전남대
經部 禮類	五服沿革圖	鄭述	潭陽	木板本	1629	1冊	규장각
集部 別集類	月峯集	高傳川	昌平 涵碧堂	木板本	1866	9卷2冊	전남대
史部 傳記類	李氏兩賢實記	李敬秀	潭陽 大崎祠	木活字本	1854	2卷1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長澤高氏族譜	長澤高氏譜所	昌平 毅烈公齋閣	木活字本	1791序	12卷4冊	국중
史部 傳記類	忠莊公年譜	李言木 等編	潭陽 大崎祠	木活字本	1854	3卷1冊	국중
史部 譜系類	洪州宋氏世譜	宋一賢 等編	潭陽 釵洞齋室	鉛活字本	1869	4卷4冊	홍주송씨문중
史部 譜系類	江陵劉氏族譜	劉錫 等編	長城 松溪院	木活字本	1846跋	13卷13冊	국중
子部 儒家類	孔子通記	潘府	長城縣	木板本	1625	8卷2冊	영남대
集部 別集類	蘆沙集	奇正鎭	澹對軒	木活字本	1898	24卷11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蘆沙集	奇正鎭	澹對軒	木活字本	1883	24卷11冊	규장각
集部 總集類	百聯抄解	金麟厚 編解	長城 筆岩書院	木板本	1610	1冊	규장각
集部 總集類	百聯抄解	金麟厚 編解	長城 筆岩書院	木板本	1907	1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象村先生集	申欽	長城	木板本	1636跋	61卷16冊	연세대
史部 傳記類	松庵金先生實記	崔興璧	長城 澹對軒	木活字本	1774	4卷2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新平宋氏族譜	宋漢彬...等	長城 觀水亭	木活字本	1910	9編3冊	전북대
史部 譜系類	新平宋氏族譜		長城 觀水亭	木活字本	1851	5冊	영남대
史部 傳記類	蔚山人名錄	邊然	長城 暮巖書院	木板本	1729	1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蔚山金氏族譜	金晦祖	長城 筆岩書院	木活字本	1809	16卷4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蔚山金氏族譜	金邦緯	長城 筆岩書院	木活字本	1860	6冊(零本)	고려대
經部 小學類	草千字文	金麟厚 書	長城 筆巖書院	木板本	1610	1冊	필암서원
史部 傳記類	霞谷事實錄	鄭雲龍	長城	木活字本	1804	5卷1冊	하버드대
集部 別集類	河西集	金麟厚	長城 筆巖書院	木板本	1802	16卷10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華山遺蹟	金奎瑞	長城 願堂齋閣	木活字本	1867	1冊	계명대
史部 譜系類	慶州金氏族譜	慶州金氏譜所	綾州佳洞魚隱齋	木活字本	1893	1卷1冊	국중
史部 譜系類	慶州金氏族譜	金之萬 等	綾州佳勝漁隱洞祭閣	木活字本	1828	2卷1冊	국중
史部 譜系類	光山李氏世譜		和順 慕先閣	木活字本	1881	1冊	영남대
史部 譜系類	光山李氏世譜續刊	李周成... 等	和順 永慕閣	木活字本	1881	9冊	국중
史部 譜系類	南平文氏族譜		綾州 元洞	木活字本	1846	7卷7冊	국중
史部 譜系類	東國科宦姓譜	未詳	綾州 五賢堂	木活字本	1910	5卷5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遜齋先生文集	鄭汝諧	綾州 望美齋	木活字本	1903	1冊	하버드대
史部 譜系類	密陽孫氏世譜	孫達謨	和順	木活字本	1881	2卷2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寶城宣氏族譜	宣弢...等	綾州 龍齋	木活字本	1847	4卷4冊	전북대
子部 儒家類	三綱行實圖	俊循	綾州 竹樹書院	木板本	1882	1冊	고려대
史部 譜系類	驪興閔氏族譜	驪興閔氏譜所	綾州 柳村齋	木活字本	1821	2卷2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鼎谷遺集	曹大中	和順	木活字本	1896	4卷1冊	전남대
集部 別集類	靜菴先生文集	趙光祖	綾州 三芝齋	木板本	1892	6卷4冊	고려대
集部 別集類	芝南集	李贊鎬	綾州 龍齋	木活字本	1909	4卷1冊	전남대
史部 譜系類	河東鄭氏世譜	河東鄭氏譜所	島城(和順)	木活字本	1845	3卷3冊	국중
集部 別集類	學圃先生遺集	梁彭孫 著	綾州 月谷	木活字本	1841	8卷2冊	대구가톨릭대
史部 譜系類	和順吳氏派譜	吳新輝 編	和順 梅山齋	木活字本	1907	1冊	하버드대
史部 譜系類	和順崔氏世稿	崔尙根 編	和順 月谷齋舍	木活字本	1888	2卷1冊	경상대

IV. 조선 후기 전남지역 출판물에 대한 분석

III 장에서는 조선후기 전남지역에서 현전하는 판본을 조사하였다. 간행기록이 확실한 현전본을 대상으로 지역별, 시기별, 판종별 분석을 통해 출판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별 분석

가. 동부권(순천 구례, 곡성)

동부권은 순천<구례>곡성 순으로 현전본이 많고, 서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류>보계류>별집류>지리류 순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주요 간행처는 곡성의 錦山金氏族譜所, 梧枚, 梧枝講堂, 구례의 蛇岷, 百島, 蓮洞, 순천의 心書齋, 相好亭, 養士齋(순천향교), 麗水會儒所, 突山鄉校, 鰲川書院, 玉溪書院, 景賢堂, 左水營 등이다. 즉 私家, 齋室, 누정, 서원, 향교, 좌수영에서 서적을 간행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서서 뚜렷한 변화는 각 지역에서 읍지가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순천향교에서 『順天續誌』, 돌산향교에서 『廬山誌』, 여수회유소에서 『麗水誌』를 19세기말에 간행하였는데, 당시 향교의 儒林을 중심으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순천의 鰲川書院과 玉溪書院에서 각각 『延安車氏世譜』와 『五忠錄』을 간행하였다. 서원에서 배향하고 있는 인물에 관한 족보 또는 전기류를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부권은 산간지역이고 거주하는 인구가 적어 4개의 권역 중 현전본의 종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나. 서부권(나주, 영광, 무안, 함평, 영암)

서부권에서는 나주>영광>무안, 영암>함평 순으로 현전본이 많고, 내용별로는 별집류>보계류>지리류, 전기류 순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이 권역에서는 별집류의 비중이 4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집의 저자들은 崔德之, 李植, 崔鳴吉, 奇遵, 許穆, 魯認, 林悌, 羅德元, 李珪緒, 柳自湄, 吳以翼, 楊應鼎, 羅武松, 成倪, 全守良, 崔溥, 林億齡, 崔忠成, 金壽恒, 趙彭年, 宋欽, 姜沆, 鄭介淸, 羅世繼, 權遇, 蔡壽 등이다. 이들은 이 고장의 출신이거나 서원이나 祠宇에서 배향하고 있는 인물, 저자의 후손이 이 고장에서 벼슬을 하던 인물들이다.

간행처별로 살펴보면 나주목이나 영광군 등의 관아에서 5종, 미천서원, 녹동서원, 수강서원 등 서원에서 5종, 나주향교 및 함평향교에서 3종, 재사 및 사우에서 13종, 누정에서 3종, 사가에서 2종, 나주의 방각본 간행처인 午門에서 2종 등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남부권(강진, 장흥, 보성, 고흥, 해남)

남부권에서는 장흥>보성>강진, 해남>고흥 순으로 현전본이 많고, 내용별로는 별집류, 보계류>전기류>예술류 순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주요 간행처로는 강진의 羅川墓閣, 月岡祠, 海南尹氏追遠

堂, 보성의 德音竹裏館, 石溪齋, 望美齋, 梁山祠, 立石齋, 장흥의 靑龍舍, 道高洞墓閣, 杏崗齋, 永錫齋, 大也谷齋室, 忠顯祠, 鶴村永慕堂, 長川齋, 石川齋, 悅樂齋, 追慕齋, 해남의 三相祠 등 재실이나 사우에서 계보류와 별집류, 전기류 등이 간행되었다. 특히 장흥의 현전본 26종 중 13종이 보계류로 다른 고장보다 많은 재사와 사우에서 간행되었는데,¹⁷⁾ 문중 중심의 간행이 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남의 책판목록에도 『春種』, 『兵衛森』, 『粉子屏風書』, 『藤王閣序』, 『大東書法』, 『篆大字』 등의 서법에 관한 책판이 수록되어 있어서 당시 서예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고흥의 興陽鄉校, 해남의 海南鄉校에서도 4종이 간행되었고, 보성의 竹川書堂에서는 『小學集說』과 『三略直解』, 장흥의 茶山精舍에서는 위백규가 편집한 『新編十九史略續集大明紀』이 간행되었다.

라. 북부권(광주, 장성, 담양, 화순)

북부권에서는 광주> 화순> 담양, 장성 순으로 현전본이 많고, 내용별로는 별집류> 보계류> 전기류> 유가류 순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4개의 권역 중 현전본이 가장 많은 곳이다. 광주의 경우 책판목록에 수록된 책판 20종 중 65%인 13종이 현전하고 있다. 이 권역에서는 별집류가 가장 많이 간행되었는데 저자를 살펴보면, 金鎭商, 朴祥, 金錫龜, 張維, 高用厚, 高敬命, 林亨秀, 鄭汝諧, 趙光祖, 李贊鎬, 梁彭孫, 奇正鎭, 柳希春, 吳希道, 鄭澈, 鄭弘溟, 李慶全, 高敬履, 金奎瑞, 金麟厚, 申欽, 高傳川, 曹大中 등인데 이들은 이 고장의 출신 유학자, 저자의 후손이 이 고장에서 벼슬을 하던 자, 이곳으로 유배 온 자들 등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권역의 주요 간행처는 재사, 사우, 서원, 관아, 사가 등이다. 다른 권역보다 유가류의 간행이 조금 많은 편인데 이황과 기대승의 서신교환집인 『兩先生往復書』, 17세기 전기에 장성현에서 간행한 『孔子通記』, 능주 죽수서원에서 간행한 『三綱行實圖』 등이다.

2. 시기별 분석

조선 후기를 세기별로 나누었고 출판의 추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한 세기를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출판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세기 후반이고 가장 저조했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이다. 간행서적의 시기별 상황을 <표 9>로 나타내었다.

가. 17세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인조반정, 이괄의 난, 두 차례의 호란으로 인해 서적의 손실이 막대하였고, 정국은 혼란을 수습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나주, 영광, 광주, 장성순으로 간행서적이 많다. 간행된 서적

17) 長川齋는 장흥 위씨, 永錫齋는 인천 이씨, 靑龍舍, 道高洞墓閣는 경주 김씨, 大也谷齋室은 수원 백씨, 忠顯祠, 鶴村永慕堂은 장흥 마씨, 悅樂齋는 장흥 임씨의 재사 또는 사우이다.

<표 9> 조선후기 전남지역 간행서적의 시기별 상황

권역 지역 시기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계	
	곡성	구례	순천	나주	무안	영광	영암	함평	강진	고흥	보성	장흥	해남	광주	담양	장성		화순
17 전		1	2	5		1	1			2	2	1	1	2	1	4		23
17 후			1	3	2	4				1				2	2			15
18 전	1		3	5	2	2	1		1			1	3	2		1		22
18 후												1		3	2	1		7
19 전	1		3	8	2		3		1		4	2		5	1	4	6	40
19 후	1	4	6	12	1	8	1	2	4		10	15	1	5	8	6	8	92
20 전	1	1	3	4				1	1	1	7	6	2	2	3	2	4	38
간기 미상	4	5	17	20	4	4	11		3	2	9	4	14	8	15	2	21	143
계	8	11	35	57	11	19	17	3	10	6	32	30	21	29	32	20	42	380
총계		54			107					99					120			

은 문집이 10종으로 가장 많고, 『천자문』 3종과 예류인 『문공가례의절』, 『오복연혁도』 등이다. 17세기에 가장 이른 출판활동은 1600년 보성의 죽천서당에서 『삼략직해』와 『소학집설』¹⁸⁾을 간행하였다. 서당에서 병서인 『삼략직해』를 간행한 예가 매우 의외이나 전쟁직후에 병서의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18세기

조선조 문예부흥시기라 일컫는 이 시기에 전남지역은 가장 저조한 출판활동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조조인 18세기 후반에는 광주, 담양, 장성, 장흥에서만 서적을 출판하였고 4지역의 간행종수는 총 7종뿐이다. 간행된 서적은 문집이 가장 많고 족보류, 『양선생왕복서』, 『김충장공유사』, 『정기록』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중앙과 지방감영의 간행활동이 활발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18세기 후반 完營에서는 31종의 서적을 간행하였다.¹⁹⁾

다. 19세기

19세기에 들어서서 출판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졌는데,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장흥, 보성, 담양, 장성 순으로 간행서적이 많았다. 19세기에 간행된 전적은 현전본의 55.93%를 차지한다. 전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계류, 전기류, 문집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동시대에 증가한 문중서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광주읍지』, 『순천속지』, 『금성읍지』, 『여산지』, 『영광읍지』 등의 邑誌를 목

18) 경북대학교도서관 소장본에는 “萬曆庚子(1600)春山陽竹川書堂刊”이라는 刊記가 있고, 목록의 발행사항에 “山陽(山淸) : 竹川書堂, 庚子(1600).”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山陽은 전남 寶城의 옛 지명이다. 권말의 기록에 “전라도관찰사 韓孝純, 삼도통제사 李時言, 보성군수 金克攄...등”으로 되어 있어서 죽천서당은 보성에 소재한 것이 확실하다.

19)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12), pp.466-467.

활자로 간행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라. 20세기

20세기에는 보성〈장흥〉화순, 나주〈순천, 담양 순으로 간행서적이 많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계류, 전기류, 별집류, 지리류가 주종을 이룬다. 19세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시기별로 전남의 출판경향을 살펴보았는데, 조선후기 전남지역에서는 보성의 죽천서당에서 서적간행을 시작하였다. 전란 후에 병서인 『삼략직해』와 교육용 서적인 『소학집설』을 간행하였다. 또한 시기를 막론하고 문집은 비중있게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17세기와 18세기 전반까지 나주가 출판의 중심지였다가 19세기 후반에는 장흥이 출판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대로 올수록 보계류, 전기류, 별집류, 지리류 등의 서적을 중점적으로 간행하였다.

3. 판종별 분석

세기별로 판종별 분석을 하여 〈표 10〉과 같이 나타냈다. 17세기 현전본의 판종을 살펴보면 목판본 36종, 목활자본 2종으로 나타나, 거의 목판본으로 전적을 간행하였다. 조선후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목활자본은 고흥에서 간행한 『蘇文抄』이다. 18세기에는 목판본 24종, 목활자본 4종으로 나타나, 여전히 목판본의 간행빈도가 아주 높다. 18세기 말부터 목활자의 사용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해서 19세기 전기에는 전적의 77.5%를 목활자로 간행하였고 19세기 후기에는 전적의 85.71%를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연활자본과 석판본으로 간행하기 시작한 점도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는 1910년까지 11년 동안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목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한 서적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서 이와 같이 목활자를 이용한 빈도가 높은 것은 전적의 내용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보계류, 전기류, 문집류 등의 서적은 배포의 범위가 문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수요를 감당하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목활자의 사용이 가장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조선후기 현전본의 板種

時期 板種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計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1910년까지	
木板本	22	14	20	4	9	10	2	81
木活字本	2	0	1	3	31	78	34	149
鉛活字本	0	0	0	0	0	2	1	3
石板本	0	0	0	0	0	1	0	1
計	24	14	21	7	40	91	37	234

V. 조선 후기 전남지역 출판물의 특성

이 장에서는 전남지역에서 간행된 전적에 대해 주제별 분석을 통해 출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적의 분류는 사부분류법²⁰⁾의 類항목까지만 전개 하였다. 분류 가능한 379종 중 경부서적은 38종(10.02%), 사부서적은 142종(37.47%), 자부서적은 72종(19.0%), 집부서적은 127종(33.51%)으로 나타났다.

1. 經部書籍

경부에 속하는 전적은 역류, 서류, 시류, 예류, 춘추류, 사서류, 소학류 등으로 총 38종이며, 전체 전적 중 10.02%를 차지하고 있다. 四部 중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소학류> 사서류> 예류> 시류 >서류> 역류 순으로 간행되었다. 개별지역으로 보면 나주> 담양> 순천, 영광, 화순> 광주 순으로 간행되었고, 권역별로 보면 나주목이 있는 서부권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소학류의 『천자문』, 『삼운통고』, 사서류가 가장 많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아동들의 기본교재와 유교의 경전 등으로 교육용 서적의 수요가 가장 높았음을 반영한다. <표 11>은 경부서적의 간행상황을 나타낸다.

<표 11> 經部書籍의 간행상황

권역 분류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계	
	곡성	구례	순천	나주	무안	영광	영암	합평	강진	고흥	보성	장흥	해남	광주	담양	장성		화순
易類				1														1
書類			1												1			2
詩類			1											2				3
禮類	1					1				1					3			6
春秋類			1	1														2
四書類				6													4	10
小學類		2	1	3	1	3						1		1	1	1		14
계	1	2	4	11	1	4				1		1		3	5	1	4	38
	8			16					2				13					

2. 史部書籍

사부에 속하는 전적은 별사류, 잡사류, 전기류, 정법류, 지리류, 보계류, 금석류 등인데, 총 142종으로 전체 전적의 37.47%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후기 전남지역에서는 史部에 속하는 전적을 가장 많

20)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이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보계류> 전기류> 지리류> 별사류> 잡사류, 정법류> 금석류 순으로 간행되었는데, 이 중 보계류는 74종으로 史部에 속하는 전적의 50%를 넘는다. 문중의 족보와 조상의 전기를 집중적으로 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전기와 비교할 때 후기에서는 지리류의 간행이 크게 증가한 점이 특기할만하다. 지리류가 20종을 차지하는데, 지리류에 속하는 전적은 각 군현의 邑誌, 『동국지도』, 『환영지』, 서원관련 전적 등이다.

개별지역으로 보면 장흥> 나주, 순천> 화순> 광주> 보성, 장성 순으로 간행하였고,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이 가장 많이 간행하였다. 장흥에서는 보계류를 14종 간행하였고, 순천에서는 지리류를 7종 간행하였다. 순천에서는 당시 순천부사 이수광이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읍지인 『승평지』를 간행하였고 그 후로 여러 차례 增補刊行하였다. <표 12>은 사부서적의 간행상황을 나타낸다.

<표 12> 史部書籍의 간행상황

권역 분류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계	
	곡성	구례	순천	나주	무안	영광	영암	함평	강진	고흥	보성	장흥	해남	광주	담양	장성		화순
別史類			2	1		1	1					1	1				1	8
雜史類			1							1		1				1		4
傳記類	2	2	4	5			1			1	2	3	2	4	2	3		31
政法類		1		1										2				4
地理類		1	7	3		1		1	1		1	2		2	1			20
譜系類	1	3	3	7	2	6		1	5		6	14		4	5	5	12	74
金石類																	1	1
계	3	7	17	17	2	8	2	2	6	2	9	21	3	12	8	9	14	142
	27			31				43					53					

3. 子部書籍

<표 13> 子部書籍의 간행상황

권역 분류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계	
	곡성	구례	순천	나주	무안	영광	영암	함평	강진	고흥	보성	장흥	해남	광주	담양	장성		화순
儒家類			1	4						1	2		2	2	3	1	2	18
兵家類											1		3		3			7
藝術類	2	1	5	4	1		2		2		7	1	7	1	1		5	39
雜家類				1														1
類書類																1		1
釋家類			1						1						1		2	5
道家類														1				1
계	2	1	7	9	1		2		3	1	10	1	12	4	8	2	9	72
	10			12				27					23					

자부에 속하는 전적은 유가류, 병가류, 예술류, 잡가류, 유서류, 석가류, 도가류 등이 간행되었는데, 총 72종으로 전체 전적의 19.0%를 차지하고 있다. 예술류> 유가류> 병가류> 석가류 순으로 간행되었다. 개별지역으로 보면 해남> 보성> 나주, 화순> 담양> 순천 순으로 많이 간행되었고, 권역별로는 남부권이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표 13>은 자부서적의 간행상황을 나타낸다.

예술류가 子部 전적의 54.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전기의 17.18%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해남과 보성에서 7종씩 간행되어 남부권에서 書法에 관한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농가류 2종과 의가류 9종이 간행되었는데 후기에는 의서나 농서를 간행하지 않았다. 유가류의 간행비중도 전기에는 자부의 48.44%였는데 후기에는 23.08%로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完營의 경우²¹⁾ 조선후기에 유가류와 별집류의 간행비중이 높았다. 또한 목판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적의 대량인출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고 감영에서 유가류를 각 고장에 보급시켰으리라고 생각된다.

4. 集部書籍

<표 14> 集部書籍의 간행상황

권역 분류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계
	곡성	구례	순천	나주	무안	영광	영암	함평	강진	고흥	보성	장흥	해남	광주	담양	장성	화순	
別集類	1	1	5	17	6	7	11		1		13	7	6	10	11	5	11	112
總集類	1		1				2	1		2					1	2	1	11
詞曲類												1						1
小說類			1	1	1													3
계	2	1	7	18	7	7	13	1	1	2	13	8	6	10	12	7	12	127
	10			46					30					41				

집부에 속하는 전적은 별집류, 총집류, 사곡류, 소설류 등인데, 총 127종이 간행되어 전체의 33.51%를 차지하고 있다. 별집류> 총집류> 소설류> 사곡류 순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개별 지역으로 보면 나주> 영암, 보성> 담양, 화순> 광주 순으로 간행되었고 권역으로 보면 서부권이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표 14>는 집부서적의 간행상황을 나타낸다.

별집류인 문집은 112종이 간행되어 전체 전적 중 29.55%를 차지하고 있다. 문집의 주요간행처는 군현 등 관아, 서원, 재사, 사우, 사가 등이다. 구체적인 간행처를 명시하지 않은 문집들의 서문이나 발문에는 간행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손이나 문인들이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에 문집을 간행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허백정문집』은 1610년 외현손 崔挺豪가 구례현감으로 부임하였

21) 옥영정, 전계논문, p.460.

을 때 당시 전라도관찰사이던 鄭經世에게 서문을 받아 1611년에 간행하였다.²²⁾ 1703년에 조경의 손자 趙九畹은 순천부사로 재직하면서 『용주유고』를 간행하였고, 책판은 송광사에 보관하였다.²³⁾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주제에서 별집류(112종) > 계보류(74종) > 예술류(39종) > 전기류(31종) > 지리류(20종) > 유가류(18종) > 소학류(14종) 순으로 간행되어 조선후기 전남지역의 출판양상을 보여준다. 별집류, 계보류, 전기류를 합하면 그 비중은 57.26%로, 조선 후기 전남지역에서는 문중과 조상관련 전적출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집의 간행이 가장 빈번하고 후대로 올수록 보계류와 전기류의 간행이 우세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경남지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²⁴⁾ 당시 조선사회의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 전기²⁵⁾에 비해 유가류, 총집류, 의가류, 사서류 등의 비중이 줄어들고, 예술류와 지리류의 간행이 증가한 점도 후기 출판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VI. 결론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전남지역에서 간행한 전적을 대상으로 전적들의 특성과 출판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전남지역에서는 조선 후기에 380종의 전적을 간행하였는데, 그 중 현전본은 236종이고,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나 현전하지 않은 간기미상 전적은 144종이다. 지역별로는 나주, 화순, 순천, 보성, 담양, 장흥, 광주 순으로 전적을 많이 간행하였다.

2) 출판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세기 후반이고 가장 저조했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이다. 17세기에는 나주, 18세기에는 나주와 광주, 19세기에는 나주, 장흥, 보성, 화순, 20세기에는 보성, 장흥에서 출판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는 나주가 전남지역의 출판의 중심이었다가 19세기 후반에는 장흥이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간행처는 재사, 사우, 서원, 관아, 향교, 사가 등이다.

3) 목활자의 사용이 활발했는데, 19세기 전기에는 전적의 77.5%를 목활자로 간행하였고 19세기 후기에는 전적의 85.71%를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목활자로 간행한 전적은 보계류, 전기류, 문집류 등으로 배포의 범위가 문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수요를 감당하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목활자의 사용이 가장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완영에서 목판본으로 전적을 많

22) 『虛白亭文集』序文：“子孫之收拾襲藏者僅若干卷，而未及刊行，今求禮縣監崔君挺豪，公之外裔也，爲之捐俸入梓”

23) 『龍洲遺稿』刊記：“歲在昭陽協洽之正月，孫九畹蒙恩授順天府使，八月始役，臘月工訖，藏板于府之曹溪山松廣寺”

24) 유탉일, 영남지방출판문화론고(부산: 世宗出版社, 2001), p.96.

25) 조선전기에는 유가류(31종) > 별집류(21종) > 소학류(14종) > 총집류(12종) > 전기류(9종), 의가류(9종) > 예류(8종), 사서류(8종) > 병가류(5종) 순으로 간행되었다.

이 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4) 주제별로 살펴보면, 史部 > 集部 > 子部 > 經部 순이다. 사부에 속하는 보계류, 전기류와 집부에 속하는 별집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전적의 57.26%로 조선후기 전남지역에서는 문종과 조상 관련 전적출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집의 간행이 가장 빈번하고 후대로 올수록 보계류와 전기류의 간행이 우세한 현상은 경남지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 당시 조선사회의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별집류 > 계보류 > 예술류 > 전기류 > 지리류 > 유가류 > 소학류 순으로 간행되어 예술류와 지리류도 많이 간행한 점이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법에 관한 서적의 수요가 많았고, 각 고장마다 邑誌를 간행한 점도 전기와는 다른 변화이다. 조선전기와 비교하면 유가류, 총집류, 의가류, 사서류 등의 간행 비중은 감소하였다.

참고문헌

1. 原典

『虛白亭文集』

『龍洲遺稿』

『湖左水營誌』

『大典通編』

2. 單行本

송일기. 全南 書院의 木板. 광주 :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 1998.

유탣일. 영남지방출판문화론고. 부산: 世宗出版社, 2001.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광주 : 사회문화원, 2002.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서울 : 경인문화사, 2008.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편. 全羅南道誌 제5권. 광주 :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전라남도의 향토문화(상).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3. 論文

김삼기. 조선후기 製紙手工業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옥영정.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2.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최지선.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강혜영. “남원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pp.5-34.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紙庫설립과 운영.” 역사학연구, 제18집(2002), pp.53-74.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46집(2010. 9), pp.159-198.

안현주. “조선시대 羅州의 인쇄문화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12. 3), pp.417-438.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12), pp.433-470.

4. 전자자료

한국고전번역원. <www.itkc.or.kr> [인용 2012년 3월 - 2012년 8월].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인용 2011년 9월 - 2012년 8월].